최준영 '광주성악콩쿠르' 1위

'매령삼장' '산촌' 등 불러
2위 김태한·3위 이민서

바리톤 최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씨가 2022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이하 광주성악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최 씨는 정율성 가곡 '매령삼장', 한국가곡 '산촌' 등 세 곡을 불러 1위에 올랐으며 상금 1500만 원과 함께 '정율성음악축제' 공연 시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지난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광주성악콩쿠르'는 총 75명이 참가해 2차례 예선전을 거쳐 13명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경연은 13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정율성 가곡을 비롯해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기량을 겨뤘다.

2위에는 김태한(서울대학교 재학), 3위는 이민서(서울대 대학원 재학)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정율성가곡상에는 최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우리가곡상 김태한(서울대학교 재학), 반주상 정서완(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향토상은 김태성(전남대학교 졸업), 고향상은 이지성(경희대학교 재학)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광주성악콩쿠르'는 21년도부터 콩쿠르 예선 심사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있다.1, 2차 예선에 걸쳐 총 2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 박정원(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박미자(서울대학교 교수), 이아경(경희대학교 교수), 김홍태(건국대학교 교수), 김범진(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박흥우(전문연주자)를 비롯해 총 10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1996년부터 시작된 광주성악콩쿠르는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클래식 한류스타로 떠오른 김기훈(바리톤, 2015년) 등 젊은 성악인을 배출한 바 있다. 팬텀싱어2 우승팀 '포레스텔라' 멤버인 테너 조민규는 2014년 정율성 가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수상자인 1위 최준영(가운데), 2위 김태한(왼쪽), 3위 이민서 씨. 〈광주문화재단 제공〉

영암 출신 조정 시인 노작문학상 수상

수상작 '그라시재라'

영암 출신 조정(사진) 시인이 제22회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그라시재라' (이소노미아)이며 상금 3000만원.

노작홍사용문학관은 제22회 노작문학상 수상작으로 조정 시인의 '그라시재라'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작문학상은 일제 치하에서 동인지 '백조'를 창간해 낭만주의 시 운동을 주도했던 노작 홍사용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됐다.

이번 수상 시집은 작품이 모두 전라도 방언으로 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나는 꽃 중에 찔레꽃이 질로 좋아라/ 우리 친정 앞 또랑 너매 찔레 덤불이/ 오월이면 꽃이 만발해가꼬/ 거울가튼 물에 흑하니 비친단 말이요/ 으치께 이삔가 물 흔들리깜시/ 빨래허든 손 놓고 앙거서/ 꽃기림자를 한정없이 보고 있었당께라"('서시' 중에서)

또한 시집 제목 또한 전라도 방언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첫눈에도 전라도 정서가 물씬 배어나오는 시집은 정이 듬뿍 담긴 전라도 말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정희성 시인 등 심사위원은 "전라도 서남 방언을 바탕으로 모어의 확장 가능성과 그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사에서 격락되거나 묻힌 부분을 여성 주인공들의 목소리로 복원, 재구조화한 점에서 여성 서사의 새로운 진경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상작은 계간 문예지 '백조' 가을호에 실리고, 시상식은 10월 1일 경기도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노작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한편 조정 시인 지난 200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이후 시집 '이발소 그림처럼'을 펴냈으며 2017년 제주 강정마을의 아픔과 생태를 주제로 장편동화 '너랑 나랑 평화랑'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어? 내가 썼네' 하고 놀랄 만큼 재밌어요"

26일 공개 시트콤 '유니콘' 유병재
"개성 넘치는 캐릭터 기대하길"

스타트업 세계를 코믹하게 그려낸 쿠팡플레이 시트콤 '유니콘'이 26일 베일을 벗는다.

각본을 맡은 유병재 작가는 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극본을) 쓰면서 스스로 놀랄 정도로 재밌고 유익한 대본이 나왔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유 작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들이 얘기를 안 해주길래 내가 먼저 말한다. 쓰다가 '어머, 이거 내가 썼네?' 라고 놀랐다"고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tvN 'SNL 코리아 3~5' 등의 극본을 맡았던 유 작가는 "이렇게 긴 호흡의 작품은 처음이라서 애착이 컸고 캐릭터들도 최대한 귀여워 보이게 쓰려고 노력했다"며 "제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된 캐릭터는 허세도 있고 귀엽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주인공 스티브"라고 밝혔다.

드라마 '멜로가 체질', 영화 '극한직업' 연출에 참여했던 김혜영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유병재 작가가 22일 쿠팡플레이 시트콤 '유니콘'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감독은 "대본이 정말 탄탄하고 재밌어서 시트콤이라는 장르에 처음 도전하게 됐다"며 "배우분들이 캐릭터 해석을 잘 해주셔서 현장에서 배우분들과 많이 의논했고 '정말 재미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캐릭터가 귀엽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배우들에게 그렇게 표현해달라고 가장 강조했다. 실제로도 평소 배우들의 모습보다 10배 이상 귀엽게 나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니콘'에서는 배우 신하균이 인정욕구와 허세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스타트업 맥콤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인다.

신하균은 "스티브는 다소 엉뚱한 면은 있지만 아이 같은 순수한 면도 있고, 나이답지 않은 귀여운 모습도 가진 가슴 따듯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작가님이 저의 오랜 팬이라고 말씀해주셨다"며 "저도 몰랐던 전작 오마주 대사들을 많이 담아주셨다"고 전했다.

유 작가는 "살짝 미친 거 같으면서도 귀엽고 착한 캐릭터를 연기할 배우로는 신하균 배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팬분들은 신하균이라는 배우에 대한 오마주를 찾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배우 원진아는 스티브'가 엉터리로 벌여 놓은 일들의 뒤처리를 주로 담당하는 유능한 인재 '애슐리'로 분한다.

코믹 시트콤은 처음 도전해본다는 원진아는 "이번에는 선배와 동료 배우들과 호흡하는 방식부터 달랐다"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믿음과 신뢰를 주고받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작품의 최고 관전 포인트"라고 꼽았다.

'유니콘'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맥콤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이(이유진 분), 회사에서 실세로 군림하는 개발팀 직원 곽성범(이중옥), 스스로가 MZ세대라고 믿는 겉멋이 잔뜩 든 제시(배유람), 시도 때도 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인사팀 총책임자 모니카(김영아) 등이 케미(호흡)를 선보인다.

이중옥은 "' 유니콘'은 현시대를 비꼬고 (블랙코미디로) 잘 풀어낸다"며 웃음뿐 아니라 감동과 메시지도 전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아는 "시트콤 기근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었다.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도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8시 첫 공개. /연합뉴스

강타, 새 정규 음반 '아이즈 온 유' 다음달 7일 발표

3집 '페르소나' 이후 17년 만에

그룹 H.O.T. 출신 가수 강타〈사진〉가 다음 달 7일 정규 4집 '아이즈 온 유'(Eyes On You)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정규 음반으로는 2005년 3집 '페르소나'(Persona) 이후 17년 만이다.

4집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의 10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아이즈 온 유'는 긴박한 드럼과 여유로운 스트링 사운드가 대조를 이루는 아르앤드비(R&B) 장르의 노래다. 둘만의 시간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야경 속 함께 추는 춤에 빗대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다.

강타는 지난 20일 수원에서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SM타운 콘서트에서 '아이즈 온 유'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강타는 "한국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무대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다"라며 "오랜만에 내는 새 앨범 타이틀 곡인데 이렇게 들려드리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